

〈제 727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광주은행-서구청-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2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과 조현기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서구 소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1억 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총 36억원의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서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올해 매출 목표, 사상 최대인 4조 2700억



금호타이어(정일택 대표이사)가 올해를 매출 증대의 해로 삼아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인 4조2700억 원의 목표를 수립하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매출도 글로벌 고인치 판매 비중을 확대해 전년 대비 36.8% 늘어난 3조 5592억 원을 달성했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경영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판단, 판매 증대와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올해는 국내외 완성차 업계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판매 채널을 다변화해 매출을 증대할 것"이라며 "고수익 제품의 판매 비중을 높이고, 판매 단가 인상과 내부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광주신세계

◆봄꽃 정원 ‘힐링’



광주신세계(이동훈 대표이사)는 최근 본관 1층 광장 플랜드 하우스에 다채로운 봄꽃으로 작은 정원을 조성해 상큼한 봄 향기를 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화사한 봄꽃과 함께 고객 얼굴의 만개한 웃음꽃을 사진으로 추억할 수 있는 포토존도 힐링쉼터 공간으로 마련했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고객들이 봄꽃 정원서 ‘힐링’도 새봄맞이 특집행사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오는 26일까지 1층 이벤트홀서 유명 브랜드 제품을 최대 80%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597회 금요조찬포럼〉

· 강사 : 손관승(前) imbc 사장) · 주제 : “리더를 위한 하멜 표류기”

「“리더를 위한 하멜 표류기”를 주제로 적자생존, 최초의 포도주와 ‘오미야게’문화, 리더의 소통과 공감, 위기경영, 청어와 강소국 네덜란드의 비밀, 출구전략과 협상력, 회복 탄력성에 대해 강연을 진행 하였다.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 “고전은 누구나 말하면서 사실은 거의 읽어본 적이 없는 책” 이라고 정의 합니다. 그 중 하나가 하멜 표류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제상황에서 가장 큰 화두는 살아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적자생존 : 강한사람이 살아남는게 아니라 잘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하멜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출발해서 대만을 갔다가 일본의 나가사키로 향하다가 그만 태풍을 만나서 한반도에 오게 됐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위기상황에서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망원경과 와인을 제공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와인을 연거푸 마시고 기분이 대단히 좋아진 것 같다. 그러더니 우리에게 아주 잘 대해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제주도에 왕이 살던 곳에서 약 30명이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소주를 선물 받습니다. 생사 위기에서 와인덕분에 생존합니다.

리더의 소통과 공감 : 경영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필요한거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 관리자일 뿐이다. 조직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사가 시키면 우선 하겠다하고 툭툭 거렸다면, 요즘은 젊은 직원들이 회사에 성과급 근거를 오픈하라고 회장에게 메일을 보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멜은 조직문제를 잘 해결한 사람입니다. 하멜은 조선에서 3년간 극심한 가뭄과 기근에 시달렸을 때 돈을 모아서 투명하게 나눴습니다. 힘들 때 배고픈건 참지만 배 아픈 건 참기 힘듭니다. 리더는 수치에 밝아야 하지만 동시에 수치가 투명해야 합니다. 요즘 MZ세대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참지 않습니다.

회복탄력성이 강한 조직 : 회복 탄력성이 강한 조직을 만들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회복탄력성이 강한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위기상황에서는 낙관적 사고가 재앙을 초래할수 있다. 둘째, 의미를 추구해야한다. 위기상황에서 자신을 피해자라는 생각보단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셋째, 브리콜라주(응급조치) 수중에 있는 것으로 꾸려나가는 창안 능력이 필요하다. 하멜은 리더의 꿈과 모험이 있어서 왔다가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20살에 떠나 40살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시기를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굴욕을 당했다 이겨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광주경충 회원들도 회복탄력성이 강한 조직을 만들어 위기를 잘 헤쳐나가기 바랍니다.



1. 경제 동향

◆ 한국은행, 「2023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3.21)

○ 2023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서비스(0.3%), 공산품(0.1%) 등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전년동월대비 4.8% 상승)

※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 전월비) : 0.5('22.10)→ △0.3(11)→ △0.4(12)→ 0.4('23.1)→ 0.1(2)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비) : 7.3('22.10)→ 6.2(11)→ 5.8(12)→ 5.1('23.1)→ 4.8(2)

- (농림수산물) 농산물, 수산물이 올랐으나, 축산물이 내려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5.5% 상승)

- (공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이 내렸으나, 화학제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
(전년동월대비 2.9% 상승)

-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산업용도시가스, 증기 등이 내려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29.5% 상승)

- (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부동산서비스 등이 올라 전월대비 0.3% 상승
(전년동월대비 3.4% 상승)

○ 2023년 2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상승(전년동월대비 4.2% 상승),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전년동월대비 3.2% 상승)

* 국내에 공급(국내출하 및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

** 국내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

◆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2023년 3월) 발표 (3.23)

○ 2022년 4/4분기말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25.1%(추정치)로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소폭 상승에 그침(전분기대비 0.4%p 상승)

* 자금순환통계상 가계(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기업(비금융법인)부문 부채(대출금, 정부융자,
채권) 잔액

Ⅲ. 노동경제동향

- (가계신용) 기준금리 인상 및 DSR 규제 지속, 자산가격 조정 우려 등으로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

※ 가계신용 증가율 추이(% , 전년동기대비) : 3.2('22.2q)→ 1.4(3q)→ 0.2(4q)

- (기업신용) 기업대출은 원자재가격 상승, 대기업 중심의 대출수요 지속 등으로 전년동월과 유사한 증가세 유지

※ 기업대출 증가율 추이(% , 전년동기대비) : 13.4('21년말)→ 13.4('22년말)

▶ [대기업] 2.5→ 18.2, [중소기업] 15.4→ 12.6

- (재무건전성)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기업부채 규모 확대 및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다소 악화*

* 이자보상배율: 8.9배('21.4q)→ 6.3배('22.4q), 부채비율: 80.2%('21.4q)→ 84.5%('22.4q)

〈가계부문의 부실위험 점진 및 대응방향〉

-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권 전반에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점차 상승*함에 따라 가계부문 부실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대

*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 0.56('22.2q)→ 0.60(3q)→ 0.66(4q)

- 가계 전반의 부실위험은 낮으나, 채무상환 부담이 과다하고 부채상환 여력도 부족한 고위험가구의 부실이 진행될 가능성 존재

- 고위험가구의 부실로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현재 0.7%에서 금년 말 1.0% 내외로 상승할 수 있으나 여전히 장기평균(1.3%) 수준을 하회

- 일부 비은행업권의 가계대출 연체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우려가 있으나,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한국은행과 정부는 고위험가구의 재무상황과 가계대출 부실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시적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규모 축소와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음.

Ⅲ. 노동경제동향

◆ 산업통상자원부, 「美,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발표 (3.22)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1일 美 정부에서 미국 반도체지원법* 상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힘.

* CHIPS and Science Act (’22.8월 발효) :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527억불(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불 포함), 투자세액공제 25% 등을 규정

** 우려대상국(foreign country of concern) :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 우리 업계에의 영향 〉

- 금번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 검토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정부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며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측과 추가적인 협의 진행 예정
- 우리 기업은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 관련된 제반 여건을 분석하고 글로벌 경영 전략 차원에서 對美 투자 및 美 인센티브 신청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총력 지원할 계획

〈 향후 계획 〉

- 美 정부는 금번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규정 초안에 대해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
- 한편, 해외 투자·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반도체 산업 여건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국내 생산·투자 기지 확충,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전략적 대응도 절실한 상황
- 이에 정부는 금번 발표된 세계 최대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을 포함하여 국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략을 관계 부처 협업 하에 차질 없이 추진 예정

Ⅲ. 노동경제동향

* '42년까지 300조원 규모 투자,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 (경기도 내 조성)

** 신규 클러스터와 기존 생산단지 및 인근 소부장기업, 팹리스밸리 등 연계

〈참고 : 미측 발표 주요 내용〉

○ 미국 반도체지원법 상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에서의 설비확장 및 기술 협력을 다음과 같이 제한받게 되며, 의무를 위반할 경우 美 정부에서 해당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있음.

- (설비확장 제한) 수혜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있는 생산설비의 생산능력*을 10년간 5% 이내로 확장 가능하며, 범용 반도체 생산설비인 경우 기존 설비의 생산능력 확장을 10년간 10% 미만까지는 허용

* 반도체 前공정 제조설비(Fab)의 생산능력은 웨이퍼를 기준으로 측정

- 한편, 금번 발표된 세부규정에서는 우려국 내에서의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기존 설비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교체 등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5%(또는 10%) 설비확장 상한 내에서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경우 중국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기술협력 제한) 수혜기업은 우려대상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한 기술·품목과 관련된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선싱을 제한받게 됨.

* 우려대상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 우려대상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기업, 미국 제재 대상 기관등을 포함

2. 노사 동향

◆ 정부가 지난 3. 6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 지속

- 양 노총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주 69시간’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워 개편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공동 결의대회 개최, ▲대시민 선전 활동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

[참고] 양 노총,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저지 활동 계획

일시	주체	내용
3. 21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공동 캠페인 진행
3. 22, 28	민주노총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대시민선전
3. 25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투쟁 선포대회
3. 30	양 노총	공동 기자회견 및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의견서 전달
3. 30	민주노총	노동시간 개악 반대 토론회(3. 30)

- 경총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3. 22「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팩트체크」를 배포했으며, 3. 23「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개최

※ [좌장]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발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

- 특히, 경총은 현행 주 52시간제로 갑작스런 업무증가나 불규칙한 업무 발생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연장근로 단위기간에 대한 선택권 부여라고 강조

- 토론회에서는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 강화, ▲건강권 보호 조치의 자율성 보장 등의 의견이 제시

- 고용부는 MZ세대와의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제조업 청년 근로자, 청년유니온 등과의 간담회 진행

Ⅲ. 노동경제동향

※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3. 22), 제조업 청년 근로자 간담회(3. 23), 청년유니온 간담회(3. 24)

- 고용부는 최근 MZ노조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중심의 소통에서 다양한 직종·계층의 청년 근로자들과의 소통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

○ 한편, 경사노위는「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과「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중심으로 후속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진행

※ 자문단에서는 ▲단체교섭 제도 개선, ▲대체근로 등 노사관계 대등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으며, 6월 중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

※ 연구회에서는 ▲파견제도 선진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5월 중 전문가안을 발표한다는 계획

◆ 2023년 임단협이 본격화된 가운데 노동계는 고율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

○ 한국노총은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을 9.1%(비정규직은 월 348,483원 정액 인상) 인상으로 결정

※ 경제성장률 전망치(1.6%) + 소비자물가상승률(3.5%) + 물가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보전분(4.0%)

[참고] 최근 양 노총 임금인상 요구안 및 협약임금 인상률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노총	7.9%	7.6%	9.2%	7.5%	7.9%	6.8%	8.5%	9.1%
민주노총	7.4%	7.4%	7.1%	6.0%	미발표	7.8%	7.5%	미정
협약임금 인상률	3.3%	3.6%	4.2%	3.9%	3.0%	3.6%	4.7%	-

○ 한편, LG전자 노사가 2023년 임단협에서 전년대비 6% 임금 인상에 합의했으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임금 교섭과 관련한 갈등 지속

- 금융노조는 3. 20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3.5% 임금인상(저임금직군 : 7%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전달

-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말부터 교섭을 진행해오고 있으나 노조 측에서 요구 중인 고율(10%)의 임금 인상 요구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